“선재동자처럼 진리 향한 공양 올립니다”

원주 황매선원, ‘선재동자 공양상’ 조성

11월 28일 공양상 제막식 봉행
주지 효산 스님 1년여 간 조성
수년 간 ‘공양상’ 회화 조형 천착
선재동자가 부처님께 연꽃 공양
연꽃엔 헌향할 수 있도록 재현

원주=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효산 스님이 조성한 ‘선재동자 공양상’ (높이133.5㎝×가로 80.2㎝, 브론즈)


효산 스님이 제막식 이후 ‘선재동자 공양상’에 향을 올리고 있다.


‘선재동자 공양상’은 바위 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형태로 조성됐다.



효산 스님은 1970년 강원 홍천 출생. 1991년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사미계를 받았고, 혜경 회옹 스님에게서 법화사상을 배웠고, 사회복지학 · 불교학 · 불교미술을 수학했다. 강원대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을 졸업했다. 도올아트타운, 백양사 고불미술관, 한국미술관, 한중문화관 등서 개인전을 10여 차례 열었다. 하남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우수상 · 특선(1996), 강원미술대전 문인화 우수상 수상(2011), 대한민국 미술축전 문인화 휘호대회 특선수상(2011), 강원미술대전 조소 부문 특선(2019 · 2021), 강원미술대전 조소 부문 우수상(2020) 등 공모전서 100여 차례 수상했다. 또한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 표창(2011), 문화체육부장관 표창(2014)을 받았다. 스님의 작품은 일본교토박물관, 중국 국가도자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석불사, 혜림선원 등에 소장돼 있다. 현재,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 진흥재단 명장심의위원, 한국문화유산 명장 선화장, 중국 츠보이공대학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황매선원을 창건해 수행하고 있다.

공양(供養)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불법승 삼보(三寶)에 공경의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의식은 불교의 한국 전래와 더불어 시작돼 고려시대에는 삼보에 대한 공양이 각종 도량(道場) 또는 재(齋)의 성격을 띠고 많이 행해졌다.

공양의 참된 정신은 대승불교의 수행덕목인 육바라밀(六波羅蜜) 가운데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재시(財施)를,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자에게는 법시(法施)를, 두려움에 차 있는 자에게는 무외시(無畏施)를 베푸는 것이 참된 공양이라는 것으로 확대돼 갔다. 그만큼 공양은 불교에서 숭고한 신앙행위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한반도에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양상들이 조성돼 왔다. 제일 잘 알려진 것이 탑전(塔前) 공양보살상의 대표 사례로 손꼽히는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의 공양보살상(국보)이다. 이 밖에도 대전리 공양상, 개태사지 공양상, 법주사 희견보살상(입상), 강릉의 신복사지 공양보살상 등이 있다.

선화가 · 조형 작가로 활동 중인 원주 황매선원 주지 효산 인명 스님은 오래전부터 ‘동자상 · 공양상’에 대한 선화 · 조형에 천착해 왔다. 동자에게서는 순수하게 불도에 이르려는 모습을, 공양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의지를 찾을 수 있어서다.

원주 황매선원은 11월 28일 경내 큰법당과 산신정에서 동안거 100일 기도 입재와 ‘선재동자 공양상’ 제막식을 봉행했다. 효산 스님이 1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선재동자 공양상’이 대중에 첫 공개되는 자리였다. 이는 10여 년간 천착해 온 ‘동자공양상’의 결실이기도 했다.

“지난 2016년에는 ‘일체중생희견보살공양상’을 발표 · 조성했습니다. 이는 신복사지 공양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죠. 앞서는 악착동자, 문수동자 등을 회화, 부조와 환조 조형을 통해 작품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성한 ‘선재동자 공양상’은 ‘일체중생희견보살공양상’과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산 스님이 조성한 ‘선재동자 공양상’은 높이 133.5㎝, 가로 80.2㎝ 청동으로 조성됐다. 황매선원 산신정 인근에 조성된 ‘선재동자 공양상’은 바위 위의 부처님 상에 연꽃을 공양하는 모습으로 재현됐다.

이번 ‘선재동자 공양상’은 공양물인 연꽃이 향로의 기능도 함께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본래 사라진 향로를 되살리고자 한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본래 공양보살상에는 향을 올릴 수 있는 자루향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훼손돼 없습니다. 대부분 흔적만 남았죠. 전작인 ‘희견보살공양상’을 조성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재동자 공양상’을 조성할 때에는 사라진 향로를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과거에는 선향보다는 나무를 깎아 사용하는 목향이 많이 사용됐으므로 긴 자루의 화로형 향로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선향을 널리 사용하는 관계로 이번 작품에는 자루형 향로 대신 연꽃 모양의 향로로 제작했습니다. 불교의 상징인 연꽃을 불 · 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려는 선재동자의 모습과 향을 올리는 향로의 기능적 의미를 담았죠.”

효산 스님의 ‘선재동자 공양상’에 대해 서길헌 〈미술과 비평〉 평론위원(조형예술학 박사)은 “이번에 조성 · 공개된 ‘선재동자 공양상’은 수행승이자 조형 작가인 효산 스님이 전작 ‘희견보살공양상’과 결합해 선보이는 순수한 조형작품이자 새로운 동자승”이라며 “선재동자가 연꽃형 향로와 함께 공양을 올리는 모습으로 조성된 향로는 불자들에게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효산 스님이 1년여 간 수행 정진하듯 매진해 완성한 ‘선재동자 공양상’의 신실한 자세와 지고한 표정 등은 모두 효산 스님이 기도하며 떠올린 동자의 이미지를 구현한 것”이라며 “스님은 선재동자의 공양하는 마음을 형상화해 불자들이 부처님 진리를 깨달아 고통에서 해방되길 바란다는 원력을 ‘선재동자 공양상’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효산 스님에게 예술은 곧 수행이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동자공양상’을 중심으로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예술도 또다른 깨우침의 길’이라는 생각은 어린 저를 불문(佛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선재동자에게 깊은 울림과 공감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려는 구도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재동자와 우리 불자들은 닮았죠. 앞으로도 우리네 불자를 닮은 동자공양상 조성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甲辰年 용수사 족자 특별보급

장수와건강 그리고 가정화합을 추구하는
저렴하고 깔끔한 고급 족자

크기 – 가로 42cm x 세로 60cm


두루미 1호 / 연꽃 2호 / 봉우리 3호 / 봉우리 4호

가격 상담 절충

▮ 예금주 815040-56-082912 김억찬 (농협)
▮ 예금주 61233-02-034009 용수사 (우체국)

*출고된 작품은 반환이 불가합니다 *작품배송 일정은 7~15일 소요됩니다
*작품의 이익금은 재소자의 교정을 위하고 불우이웃을 도우며 사찰의 증축을 위하고자합니다.

1996-9-1 법무부 위촉 청송제2교도소 교정위원
2000-6-15 법무부대구지방교정청장 표창패(제193호)
2000-7-6 법무부장관 표창장(제39066호)
2003-9-1 법무부 의촉 경주교도소 교정위원
2005-3-3 경주교도소장 감사패
2008-10-30 법무부장관 표창장(제39066호)
2012-2-9 경주교도소장 표창패(제2012-3호)
2021-10-01-2024-9-30-법무부장관-현교정위원

용수사 010-6365-8780 / 010-9612-1022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